

ESG평가의 문제는 책임투자자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약화시켰으나, 2016년 이후 ICT 융합과 ESG통합전략을 통해 감춰진 지속가능한 기업을 찾아냄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Market Drivers: Who makes ES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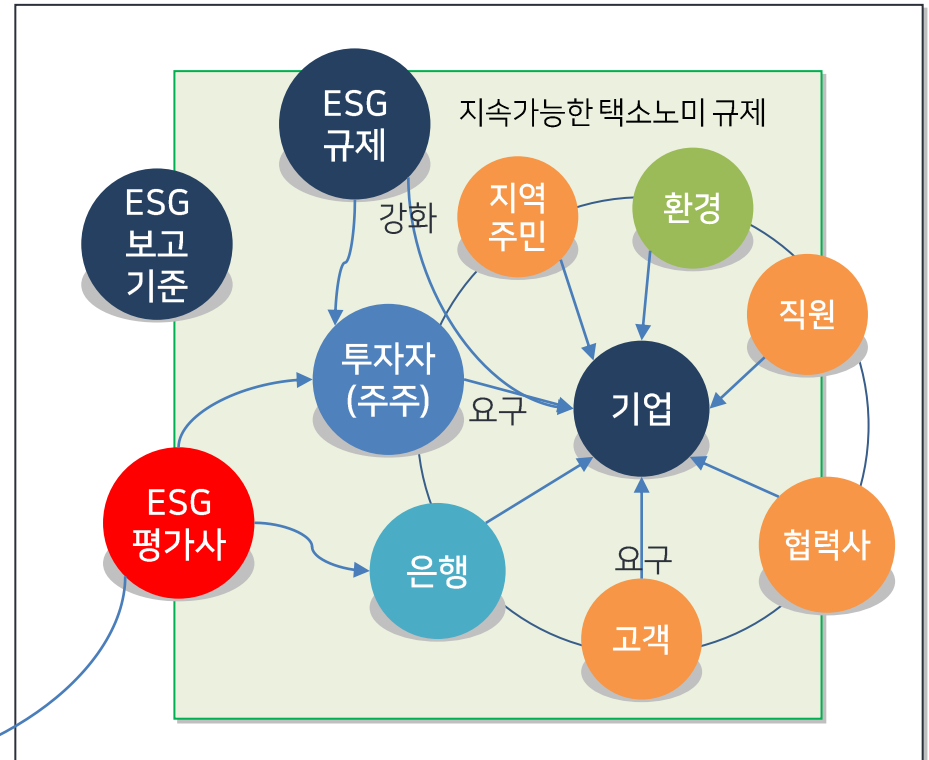
ESG Eco-system



ESG 데이터 제공업체 - 2020년 기준



자료: Weefin, SK 증권



- ESG는 기업과 사회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며, 단순한 이윤창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가치의 창출에 관한 것"임
- ESG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활동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중요성(materiality)을 평가하는 것

2021년 이후 향후 10년은 ESG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ESG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용되며 강화될 전망이다

ESG 평가(Rating)의 변화

<p>1 미래 리스크 및 기회의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히 등급 산정을 통한 혜택 제공 방식은 규제적·결과지향적• 신용평가와 ESG평가의 차이 ⇒ 미래 리스크를 사전에 반영하여, 미래 기회의 식별하고 포착할 수 있음	<p>2 ESG Analys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ating ⇒ AI와 데이터 기반의 Analysis의 시대• 주관 및 정성적 평가의 배제 ⇒ 정량적·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Finance와 non-finance (ESG)의 통합적 분석	<p>3 비즈니스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Company)에 대한 평가 ⇒ 비즈니스(Business activity)에 대한 평가• 진정성의 시대, 진정성 평가 ⇒ 비즈니스 방향과 과정의 진정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p>4 목표의 달성과 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에 의한 등급 부여 ⇒ 평가에 의한 목표의 설정과 달성의 검증• 방향과 목표의 설정 가능• 전환 과정(노력)에 대한 지원	<p>5 Materia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에의 ESG 적용 (Good or Bad X)• Materiality의 변화와 Dual Materiality 평가• 중요성 ⇒ E > S > 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p>6 적용 범위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확대: 투자 ⇒ 은행 등 금융 전반 (지속가능금융)• 대상의 확대: 상장사 ⇒ 협력사/ 비상장사 (SCRM)• 사용자의 확대 : 금융기관 ⇒ 기업, 정부, 공공기관, 개인투자자

ESG는 2000년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CSR을 추진하는 시기에서, 금융위기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 관행의 토대가 되던 '10년대를 거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로의 전환 수단

ESG의 과거 20년과 향후 10년

